

미술은 □□의 문제이다?

김윤경(전시기획자)

작가 송호은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처음 만나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는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나와 같은) 세대들은 결코 자신의 작업, 자신의 감수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인상적인 첫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하게 된 그의 작업실 역시 인상적이었다. 일 년간 배정된 학교의 (임시) 작업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실은 그 옆방, 앞방 동료들의 작업실과는 달리 말끔히 개조되어 있었다. 수고스럽게 일일이 깔아놓은 마룻바닥은 차치하고라도, 그의 작업실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작업실이라기보다는 마치 디자인 사무실과도 같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나하나 손수 만든 나무 액자에 끼워져 작업실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16절지 정도 크기의, 혹은 그보다 작은 크기의 드로잉들, 나무로 만든 선반 위에 가지런히 진열된 드로잉이 프린트된 포장 용기들, 진공 포장된 드로잉 엽서 묶음, 책꽂이에 잘 정리되어 있는 드로잉 북과 포트폴리오... 그렇게 송호은의 작업은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송호은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 일상, 나아가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를 매일 일기를 써나가듯 드로잉을 통해 풀어낸다.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 순간순간 떠오르는 넘쳐나는 아이디어와 이미지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기 위해 아마도 드로잉이라는 방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듯, 그의 작업실은 크고 작은 드로잉들로 가득했다. 이렇듯 매 순간 메모하듯 습관적으로 드로잉을 하는 송호은은 포착된 이미지들, 그 사고의 파편들을 조합하여 좀 더 확장된 화면으로 증식시켜 나간다. <나와 너(I and You)>(2006), <즉흥작(Improvisation)>(2006)과 같은 작업들은 그의 순발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영리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재조합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확대 재생산 방식은 '예술과 삶'이라는 거창한 경계를 간단히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기도 한다. 송호은은 이러한 접근법을 다소 엉뚱하게도 "관람자 밀착형 작업"이라고 정의하는데, 대량생산품을 포장하는 재료를 캔버스 대용으로 사용하여 드로잉을 하고 이 포장재(package) 자체를 상점의 상품처럼 진열하기도 했던 이전의 작업들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정의는 보다 명료해진다. 이렇듯 '예술'이라는 권위적인 허울을 벗어 던진 그의 드로잉들은 엽서로, 액세서리로, 티셔츠로 다양하게 표정을 바꾸며 관람자를 향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작업들에서는 밝거나 가벼웠던 이전의 접근법과는 달리 좀더 진중해

진 태도가 엿보이는데, 이것은 선배 세대가 보여주었던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화두를 기꺼이 벗어 던지고 눈과 손이 움직이는 대로, 오감이 이끄는 대로 작업했던 송호은의 태도와는 변별되는 면모이다. 더불어 이러한 최근의 작업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의 강박적인 정리벽이다. 그와의 첫 만남이 남겼던 인상이 이러한 강박관념의 필연적 결과였음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로 인해 다소 낯설어 보였던 그의 새로운 접근이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청소법>(2008)에서 송호은은 작업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를 늘 자신을 옹아매었던 '청소와 정리에의 강박관념'으로 풀어내는데, 작가 스스로에게 '조형적 놀이'로서 인식되었던 작업은 이제 사고의 '집중과 부활'을 위한 '청소와 정리'로 방향을 튼다. 작가로서 오래 살아남기를 희망하며 첫 발걸음을 떼어 놓는 이 시점에서 준비하는 첫 번째 개인전 <Level 1>을 통해 작가 송호은은 아마도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물론, 전시의 부제인 "미술은 내공의 문제이다"라는 당찬 구호가 그의 변모에 힘을 더해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작가 송호은은 여전히 많은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드로잉이라는 것이 '작가 내부로부터 꼬집어낸 무언가가 최초로 구현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생각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순발력 있게 잡아낸 이후에 작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생각들을 정리정돈하고, 때때로 그것들을 재조합, 재구성하여 이미지로 형상화한 사고의 편린들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발언으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말이다. <나라면 아무런말도안했을것이다>(2008), <이젠저도지쳤어요그만할래요>(2008), <그래도밥은잘먹습니다>(2008), <미술은내공의문제이다>(2008)와 같이 작가의 독백을 순발력 있게 잡아낸 최근의 작업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나의 시선을 잡아 끈다. 그리고 다소 초탈한 듯 내뿜어진 그의 드로잉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희망한다. 이러한 송호은의 내적 사유와 외적 반응이 좀 더 혼란한 상태로, 좀 더 오래도록 그의 내면에 머물러 축적되고 숙성되어 독백 이상의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송호은의 내공이 자연스레 드러나기를.